"'삼세불회도' 용주사 창건 당시 조성됐다"

강관식 교수, 國博 학술지 〈미술자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성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인 '삼세불회도(三世佛會圖)'는 서양화 기법이 활용돼 20세기 근대기 작품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삼세불회도가 정조대에 김홍도 등이 조성했다"며 기존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관식 한성대 예술학부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 〈미술자료〉 제%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용주사 삼세불회도는 정조 측근에 포진하고 있던 김홍도 · 이명기 · 김득신 등 궁중화원과 상겸 같은 왕실 화승들이 공동으로 작업해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용주사는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인 현륭원(顯隆園)을 화성으로 옮긴 후, 1790년 조성된 능사(陵寺)다. 삼세여래체탱(三世如來體幀)으로도 불리는 이 탱화는 화가 등을 기록한 화기(畵記)가 없는 탓에 제작 시기를 두고 지난 50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형식과 도상이 19세기 후반 화승들이 그린 청룡사와 봉은사의 '삼세불회도'와 유사하고 서양화법이 도입돼 '19세기 조성설'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강 교수는 논문에서 '삼세불회도' 중앙에 쓰인 '왕실 존위 축원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본래 왕실 존위 축원문에는 '주상전하(정조), 왕비전하(효의왕후), 세자저하(후일 순조)'로

화기 없어 제작시기 · 작가 논쟁
수미단 왕실 존위 축원문 분석
왕비보다 앞에 있는 '자궁저하'
혜경궁 위상 높던 정조代 가능
'삼세불회도' 1790년 그린 원본
김홍도 · 이명기 등 畵師로 참여

쓰여 있었으나 이를 지우고 왕비 앞에 '자궁저하(혜경궁 홍씨)'를 추가로 넣어 개서(改書)한 점을 강 교수는 주목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현륭원의 재궁(齋宮)인 용주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사도세자 아들인 정조와 부인인 혜경궁 홍씨임에도 불구하고 축원문에 혜경궁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정조가 직접 지시해 개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 개서는 용주사가 준공된 뒤 정조가 현륭원으로 원행해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용주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세불회도'를 친견했던 1790년 1월 17일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봤다.


화성 용주사의 삼세불회도. 가로 350cm, 세로 420cm 크기로 서양식 명암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기가 없고 서양화법이 활용돼 제작시기와 작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이어 "'주상전하, 자궁저하, 왕비전하, 세자저하'라는 개서는 정조대의 특수한 전례를 따른 것"이라며 "'자궁저하'를 왕비의 앞에 놓는 개서된 축원문은 현존 '삼세불회도'가 1790년 창건 당시 그려진 원본 진작임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구전돼 내려오는 작가에 대해서도 '팀 김홍도'를 주장했다. 그는 "현존 용주사 '삼세불회도'는 국왕 측인인 김홍보 · 이명기 · 김득신 · 상겸 스님 등 궁중화원 · 화승들이 공동작업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조대에 발달했던 서양화법을 전면적으로 구사해 불화 역사상 유례없는 양식을 새롭게 창조했다"면서 "불화의 맥락이 아니라 궁중회화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20세기 초 서양화법 개채설이나 신작설이라는 상상의 허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술자료〉 제%호에는 미술사 최신 연구 성과들을 담은 논문들이 수록됐다. 강건우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소고'를 통해 철조여래좌상이 9세기 후반에 조성된 약사여래상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성배경을 추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실경산수화 특별전에 전시된 주요 작품에 대한 후속연구인 '16세기 실경산수화 이해의 확장: 〈경포대도〉, 〈총석정도〉를 중심으로', '1788년 김응환의 봉명사경과 〈해악전도첩〉', '과시된 효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왕선영도〉' 등도 실렸다.

한편, 〈미술자료〉는 1960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미술사 전문 학술지로, 한국미술사가 미개척 분야였던 시기 관련 자료의 발굴이 잇따르자 국립박물관으로서 미술사학계의 발전과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간됐다. 매년 6월 · 12월 발간되며 학술논문 외에도 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한 새로운 자료 및 서평, 국제학술대회 참가보고 등을 게재한다.

〈미술자료〉의 모든 논문과 총 목차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남한강 3대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민운동본부 1월15일 창립
자료 발굴 · 순례길 걷기 등
폐사지 의미 조명사업 전개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고려시대 융성했던 남한강 유역 3대 폐사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 추진된다.

'남한강 유역 폐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민운동본부(이하 남사본)'는 1월 15일 원주시의회 시민모임방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등재 추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남사본 측은 감사 선출과 정관을 승인하고 연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남사본은 올해 남한강 일대 문화유적 자료 발굴과 학술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3대 폐사지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남한강 일대 마을 탐방과 순례길 걷기, 특산품 발굴 등을 통해 폐사지 일대 마을의 과거 생활상과 가치 등을 알릴 계획이다.



남한강 유역 폐사지 세계문화유산등재 국민운동본부는 1월 15일 원주시의회 시민모임방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부론면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지정면 흥법사지를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는 남한강 변에 있고, 사지 간 직선거리가 3km정도로 가깝다. 흥법사지는 남한강 북쪽 지류인 섬강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는 역사 ·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원주시는 남한강 3대 폐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1년여 간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장점목록 등재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남한강 3대 폐사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내달 중 잠정목록 선정을 위한 심의를 열 계획이다.

김상환 남사본 운영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심의가 통과돼 잠정목록에 등재되면 남한강 3대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가 탄력받게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로서 남한강 3대 폐사지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전병선 · 김정희 · 이숙은 원주시의원, 박순조 국보 제101호 원주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박종수 원주시역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한문불전 심화과정 수료생 첫 배출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1월 13일 제7기 수료식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는 1월 13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동 227호에서 제7기 수료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목표로 출범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2014년 제1기 수료생(기본과정)을 배출한 이래 이번 수료하는 7기 수료생 11명을 비롯하여 총 40여 명의 수강생들이 수료했다.

2020년 수료식에서는 혜인 스님(심화과정), 명준 스님(심화과정), 정목 스님(기본과정), 자민 스님(기본과정), 혜신 스님(기본과정) 등 스님 5명과 김정만(심화과정), 윤미란(심화과정), 윤세형(심화과정), 정헌열(심화과정), 허웅(심화과정), 김관용(기본과정) 등 6명의 재가 학생이 수료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신설된 심화과정에서 최초로 배출된 수료생이기도 하다.

심화과정 성적 최우수 장학에는 윤미란, 우수 장학에는 지안 스님, 명준 스님, 김기학, 장려 장학은 정성인 연수생이 수상했다.

기본과정 성적 최우수 장학에는 김관용, 우수 장학에는 허남결, 진성 스님, 효찬 스님, 현덕 스님, 혜신 스님이 선정됐다. 장려 장학에는 정목 스님, 법익 스님, 자민 스님, 승려 장학은 청목 스님이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봄 발표 논문 공모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0년 봄 논문발표회' 발표논문 신청을 받는다.

3월 21일 오후 1시 열릴 예정인 봄 논문 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연구자들은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논문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마감 시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박사과정 이상 학위취득 5년 이내의 신진학자면 신청 가능하다. 발표자 선정 및 통지는 2월 7일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발표원고는 2월 28일 마감한다.

불교학연구회는 "봄과 가을, 연간 2회에 걸쳐 신진 학자들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논문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주제는 불교 관련 내용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